

#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나타나는 인물관계 기록의 문제점\*

문치웅\*\*

## 目 次

- I. 서론
- II. 오행과 오제
- III. 오제본기의 인물 관계 분석과 평가
- IV. 결론

### 【국문초록】

사마천에 의해 저술된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편에는 상고시대에서 고대국가 형성 초기까지 천하(天下)의 오제(五帝)로 칭해진 인물들에 대한 활동 내용과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오제본기」의 내용에는 오제의 인물 선정의 문제점과 주요 인물의 활동 내용 및 활동 시대가 잘못 기술된 문제가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사기』의 다른 편인 「오자서열전(伍子胥烈傳)」, 「소진열전(蘇秦列傳)」, 「장의열전(張儀列傳)」 등에서도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제본기」에서 오제선정의 객관적 타당성 부재와 인물간 관계 설정의 잘못, 주요 인물에 대한 활동내용의 과장 또는 축소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오제의 역년(歷年)은 공손을 중심으로 하여 시대별로 1인씩 단일계보로 이어 내려온 것으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인물이 바뀔 때마다 그 활동 중심지도

\* 본 논문은 2015년 제 57회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홍익인간재단 역사문화기술연구원

중앙에서, 북방, 동방, 서방, 중앙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중심지 이동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오덕(五德)으로 다스리며 단일 계보로 이어진 세상이라면 정상적이지 않다. 넓은 천하에서 이렇게 빠른 중심지 이동은 불가능하다.

『오제본기』에는 또한 많은 역사 왜곡과 축소 문제가 있다. 오제로 선정된 위인들의 활동 시기에 중심 지역은 동방위의 木이지만 『오제본기』에서는 土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것은 황제라 불린 공손 현원의 주요 활동지인 土 지역을 강조하여 마치 상고의 역사가 공손 중심으로 이어진 것처럼 기술하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러한 근거로 土 지역의 책임자인 공손의 업적을 기술하면서 시간적으로 500여년 차이가 나는 염제를 동시대의 갈등 구도의 대상으로 잘못 표현하였다.

또한 『오제본기』에서는 金 지역의 책임자로 인정되는 백제(白帝)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상생과 상승관계에 의한 순서적 운행관계에 따라 동시대에 한명씩 선정한다는 규칙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오제본기』의 오제는 그 선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오제본기』내용의 범위에 속하는 연구의 수행에서는 이 문헌이 가지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참고하여 비교, 평가를 통해 인용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오제본기, 오행, 상생과 상승, 단일계보, 염제와 황제

## I. 서론

전한(前漢)시대에 편찬된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는 상고시대에서 고대국가 초기까지 천하(天下)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 중에서 시대별로 1인씩 전체 5인을 선정하여 오제(五帝)라 하고 그들에 대한 업적을 기록하였다. 『오제본기』의 오제는 공손(公孫)에서 시작하여 전욱(顛頊), 제곡(帝嚳), 요(堯), 순(舜)까지 이어진 5인이다. 공손을 일반적으로 현원 또는 土 지역

의 상징색인 황색을 써서 황제(黃帝)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오행(五行)에서 방위(方位 cardinal directions)의 상징색을 사용하여 각 방위의 책임자에 대해 황제, 흑제(黑帝), 적제(赤帝), 청제(靑帝), 백제(白帝)라 칭하고 오제라 하였다.

『오제본기』에서 나타나는 공손 이후 네 명의 인물들은 모두 공손의 후손이라 하고 있으며, 단일 계보에 의해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오제 선정은 『세본(世本)』과 『대대례기(大戴禮記)』의 문헌을 참고한 것이며, 후한시대 반고(班固: AD32~92)에 의해 편찬된 『백호통의(白虎通義)』에서도 사마천의 오제 선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오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문헌과 선정 시대에 따라 그 대상 인물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경(書經)』과 『좌전(左傳)』에서는 공손 이전의 인물인 태호(太皞)와 신농(神農)을 오제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왕세기(帝王世紀)』와 『예기(禮記)』,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에서는 소호(少皞)가 오제에 포함되었다. 사마천과 동시대의 인물인 공안국(孔安國)은 『서경』서(序)에서 『오제본기』와 다른 소호를 포함한 인물들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오제 선정에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대적 순서에 따라 각 1명씩 전체 기간 동안 5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오제의 인물 선정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보다 2000여년이 지난 전국시대 이후에 정립된 오행 상생과 상승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오행의 다섯 요소의 물질적 속성을 이용한 순환 순서에 따라 시대별로 1인씩 전체 5인의 인물이 선정된 것이다. 이러한 오제 선정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 한 이후 천하의 왕조 또는 지배자가 그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天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본격화 되었다. 이를 통해 천하가 상고시대에서 하·은·주 삼대를 거쳐 한(漢)까지 유구한 기간 동안 단일 계보에 의해 이어져 온 것처럼 만들었다.

오행의 응용을 통해 역사와 국가 개국의 정당성 차원의 해석적 접근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전국시대 말의 추연(鄒衍)<sup>1)</sup>과 한초(漢初)의 동중서(董仲舒 BC 179~BC 104)<sup>2)</sup>가 있다. 추연은 오행 상생과 상생에 대한

개념 정립에 기여한 인물이며, 상승관계를 이용하여 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설명한 종시오덕(終始五德)론을 주장하였다. 동중서는 추연의 사상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그 개념을 개선하여 상생설로 정리하였다.

동중서의 영향을 받은 사마천은 『사기』의 여러 편에서 추연의 주된 주장인 상승의 종시오덕을 따라 기술하면서 종시상생(終始相生)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상생에 대한 관점을 역사 기술에 이용하였다.<sup>3)</sup>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오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무리한 업적 만들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활동 시대가 서로 다른 주요 인물들이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역사를 왜곡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이름을 인명으로 잘못 인식하여 『오제본기』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에 더하여 주요 활동 무대가 되는 중심 지역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공자(孔子)는 오행의 요소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위치는 木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이라 하였다.<sup>4)</sup> 그런데 『오제본기』에서는 상고시대의 동아시아 역사의 활동 중심을 土 지역으로 설정하여 이 지역의 책임자인 공손 중심의 역사로 기술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마천 이후에 『오제본기』를 주해한 문헌에서도 일부 지적되었다. 대표적인 주석서로 남조(南朝)시대 宋(420-479)의 배인(裴駰)의 『사기 집해(集解)』, 당대(唐代)에 사마정(司馬貞)의 『사기 색은(索隱)』과 장수절(張守節)의 『사기 정의(正義)』가

1) 鄒衍: 전국말기 齊나라 사람이다. 주요학설은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과 대구주설(大九州說)이다. 직하학궁(稷下學宮: 齊의 국립 고등학부)의 학자였고, 그의 '진언천사(盡言天事)'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그를 담천연(談天衍) 또는 추자(鄒子)라 불렀다. 그가 활동한 시대는 맹자 뒤이고, 공손룡(公孫龍), 노중련(魯仲連)과는 동시대인이다.

2) 董仲舒: 한무제 때 활동했던 사람이며, 주요 저서로 『春秋繁露』가 있다.

3) 『사기』 『진시황본기』, 『봉선서』, 북경, 예문인서관, 건륭 12년, 119~121쪽과 541쪽.

4) 王籊, 『孔子家語』권6 『五帝』, 발행처와 연도 미상, 75~77쪽.

(공자가 이르길, 오행의 용사(운행)는 먼저 木에서 일어난다. 木은 동방이며, 만물의 처음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왕 노릇하는 자가 이것을 준칙삼아 가장 먼저 木德으로 천하를 다스린 것이다.)

대표적이다.<sup>5)</sup>

『사기』 편찬에서 잘못 기술된 이러한 축소, 과장, 왜곡의 문제는 오자서(伍子胥)와 관련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김이식은 『오자서열전』의 내용이 사마천의 주로 참고로 한 『좌전』, 『국어(國語)』, 『전국책(全國策)』, 『여씨춘추』 등의 내용과는 달리 많은 부분 가공되고 주관이 많이 개입되었다고 하였다.<sup>6)</sup> 또한 이인호는 전국시대의 인물인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에 대한 기록인 『소진열전』, 『장의열전』을 중심으로 사마천 기록의 문제점을 다루었다.<sup>7)</sup> 이 논문에서는 두 인물간의 시대적 활동 순서의 잘못됨과 그 활동 내용이 두 인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인물의 활동내용이 그들의 활동으로 잘못 기술된 부분이 지적되었다. 또한 활동 내용의 기록에서도 역사적 사실보다는 인물의 인생관이나 역동적인 활동 등과 같은 문학적 허구에 의한 기술이 많아 소설적 특징이 강하므로 인해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비판하였다.

안예선은 『사기』의 춘추 시기 관련 내용을 『좌전』과의 비교를 통해 사마천에 의해 어떻게 편집, 확장, 축소, 왜곡되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정리하였다.<sup>8)</sup> 『사기』 『오제본기』의 내용과 관련한 연구로 박병섭은 치우와 현원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 구성의 전거로 사용한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up>9)</sup> 몽문통은 『오제본기』에서 요순과 관련한 정권이양의 문제를 다루었다.<sup>10)</sup> 광말약은 황제 중심의 전수관계에 대한

5) 『사기』 『오제본기』 앞의 책, 26~30쪽.

6) 김이식, 『『사기』 속에 나타난 오자서의 인물 형상 연구』, 『동아시아고대학회 57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5, 197~210쪽.

7) 이인호, 『『사기』의 허구성(虛構性)과 사마천(司馬遷)의 인생관 - 소진(蘇秦), 장의열전(張儀列傳)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28권, 2005, 107~130쪽.

8) 안예선, 『『사기』의 춘추(春秋) 시기 서사(敘事) 고찰 - 좌전(左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46권, 고려대학교, 2014, 239~267쪽.

9) 박병섭, 『『사기』 오제본기와 그의 전거 (『대대례기』 『제계성』, 『공자가어』 『오제덕』, 『춘추』, 『국어』, 『상서』) 사이의 비교』 『선도문화』 11권, 2011, 167~235쪽.

10) 蒙文通, 『古史甄微』, 成都, 巴蜀書社, 1999, 75쪽.

부정적 관점을 제시하였다.<sup>11)</sup>

『사기』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사기 저술에서 참고로 삼은 문헌의 내용과 비교를 통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특정 부분에 대하여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확대, 축소 또는 허구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사기』의 사료적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기』『오제본기』의 오제 선정과 주요 인물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룬다. 상고에서 고대 초기의 특정 기간의 인물들을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상생과 상극의 개념을 적용하여 오제라고 하는데 『사기』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인물간의 관계에서 시대가 서로 다른 인물들을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것으로 잘못 설정된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접근 방법은 동아시아 상고와 고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 II. 오행과 오제

### 1. 오행과 그 응용

동아시아 상고와 고대사에서 오행은 水、火、木、金、土의 다섯 요소를 이용하여 북, 남, 동, 서, 중앙의 방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정의된다. 오행의 요소들에 대해 정의된 방위와 더불어 요소들 간에는 水-火-木-金-土의 순서가 있다.<sup>12)</sup> 이렇게 정의된 방위와 순서에 대해 상징색으로 오색(五色)과 상징동물로 오수(五獸)가 정의되었다. 오수의 水는 현무(玄武)、火는 주작

11) 郭沫若, 『中國古代社會研究』,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 95쪽.

12) 『書經』, 『洪範』, “一,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朱雀)、木은 청룡(靑龍)、金은 백호(白虎)、土는 기린, 등사, 황룡, 황웅, 또는 현원으로 하였다.<sup>13)</sup> 토의 상징동물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오생상생론에 의해 중심을 토로 하면서 그 토를 새롭게 강조하고자 하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행 지역의 책임자를 오제 또는 오덕왕이라 하였다. 이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행과 그 활용

五行	방위	색	오제(五帝)	오덕왕(五德王)	오수(五獸)
水	북방	흑색(黑色)	흑제(黑帝)	수덕왕(水德王)	현무(玄武)
火	남방	적색(赤色)	적제(赤帝)	화덕왕(火德王)	朱雀(朱雀)
木	동방	청색(靑色)	청제(靑帝)	목덕왕(木德王)	청룡(靑龍)
金	서방	백색(白色)	백제(白帝)	금덕왕(金德王)	백호(白虎)
土	중앙	황색(黃色)	황제(黃帝)	토덕왕(土德王)	기린, 등사, 황룡, 황웅(黃熊), 현원

고대의 오행과는 별도로 전국시대에 오행 요소들의 물질적 속성을 이용하여 상생(相生)과 상승(相勝) 개념으로 응용되었으며, 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오행의 덕치(德治)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진나라는 수덕(水德), 한나라는 화덕(火德)을 표방하여 개국의 명분을 삼은 것은 대표적이다. 오행에서의 상승과 상생은 오행의 구성 요소간의 물질적 속성을 이용하여 정의한 의미론적 관계(意味論的關係 semantic relation) 개념이다. 상생은 서로의 관계에서 생하다, 낳다, 살리다의 生의 의미이다. 반면에 상승은 서로의 관계에서 '이기다, 제압, 억제하다, 죽이다'라는 뜻으로 상극(相剋)이라고 쓰기도 한다.<sup>14)</sup>

13) 소길, 『오행대의』제 5, 『오령(五靈)』, 목판본, 1804, 32~37쪽; 이맥, 『태백일사』(한뿌리 발행 환단고기 수록), 2005, 52쪽.

14) 소길, 위의 책, 제 2, 『논상극(論相剋)』, 25~26쪽.

상생과 상승은 오행의 요소들에 대하여 기존의 방위적인 정의가 아니라 재료적 측면에서 그 요소들에 대한 물질적 속성을 이용하여 정의한 것이다. 오행의 순환 순서가 水 - 火 - 木 - 金 - 土이지만, 상생에서의 순서는 木 - 火 - 土 - 金 - 水이다. 또한 상승에서는 土 - 木 - 金 - 火 - 水가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오행과 오생 상생 및 상승의 순서

	순서	기준
오행	水 - 火 - 木 - 金 - 土	- 방위 - 방위 지역의 개척 순서
오행 상생	木 - 火 - 土 - 金 - 水	- 요소의 물질적 속성 - 요소의 속성간 상생 관계
오행 상승	木 - 土 - 水 - 火 - 金	- 요소의 물질적 속성 - 요소의 속성간 극복또는 이기는 상극관계
	추연의 중시오덕에서의 상승: 土 - 木 - 金 - 火 - 水	

상생과 상승 개념은 역사 해석과 새로운 국가 개국의 정당성 확보 차원의 주요 문제에 폭넓게 적용되었다. 추연의 상승 개념에 의한 왕조의 흥망은 오덕의 순환에 따르며, 그 순서는 土、木、金、火、水라고 하였다.<sup>15)</sup> 동중서는 추연의 중시오덕을 응용하여 상생설로 정통성을 확립코자 하였으며, 土를 오행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였다.<sup>16)</sup> 『오제본기』에서 土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는 이러한 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결국 동아시아 상고사를 축소, 왜곡하는 발단이 되었다.

15) 박동인, 「추연의 오행상승설과 상생설의 구조와 함의」, 『철학연구』 84권, 2009, 83~113쪽; 郭爲, 「음양오행가의 사상」,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211쪽.

16) “土者五行之主也. 五行之主土氣也”



## 2. 오제의 인물 선정

『오제본기』에서 선정된 오제와 주요 문헌에서 나타나는 오제의 인물 선정의 비교를 위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문헌의 오제 선정

문헌	오제인물
『황왕대기(皇王大紀)』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요(堯)、순(舜)
『세본』, 『대대례기·오제덕』, 『사기·오제본기』, 『백호통의』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左傳·昭公十七年』, 『예기·월령(月令)』, 『여씨춘추·사시기(四時紀)』, 『회남자』	복희, 신농, 황제, 소호(少皞), 전욱
『상서 서』, 『제왕세기』, 『세본』	소호, 전욱, 고신, 요, 순
『道藏·同紳部·譜錄類·混元聖記』	황제, 소호, 제곡, 제지(帝摯), 요

오제 구성에서 선정 인물들은 그들의 활동 지역과 시대도 다르다. 가장 앞선 시대의 인물은 복희이며, 가장 늦은 시기의 인물은 순이다. <표 3>의 인물들을 오행 지역의 상징색과 책임자의 칭호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오제의 주요 인물

오행/방위	색	오제	오덕왕	오제로 선정된 인물
木 동	청색	청제	목덕왕	태호, 여와, 제곡
火 남	적색	적제	화덕왕	신농, 요
土 중앙	황색	황제	토덕왕	공손, 순
金 서	백색	백제	금덕왕	소호
水 북	흑색	흑제	수덕왕	전욱

<표 4>의 분류에서 『오제본기』의 오제 선정 인물들 중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은 중앙 토에 대한 공손과 순이며, 당연이 있어야 할 금의 소

호는 들어있지 않다. 『오제본기』에서 오제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는 선정 기준과 인물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중심지 이동 문제,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 문제가 대표적이다.

### 1) 오제 선정의 문제

『오제본기』에서 선정한 오제는 공손, 전욱, 제곡, 요, 순의 5명이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오제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단지 『세본』과 『대대례』에 근거하여 오제를 선정한 것 같지만 『오제본기』에서 선정된 인물들을 보면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오행 상생과 상승에 의한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2) 인물관계 구조의 문제

『오제본기』의 “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三戰然後得其志”의 내용에서 공손 황제는 염제와 판천의 교외에서 3전을 한 후에 비로소 염제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염제와 공손은 서로 활동 시대가 다르며, 대략 시간적으로 500여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인물관계에서 공손과 동시대의 인물이며, 오제와 관련한 문헌에서 공히 등장하는 소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시대에 1인만 선정하는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오행상승 또는 상생의 개념 적용에도 위배된다.

### 3) 지명(地名)과 인명에 대한 문제

『오제본기』의 공손황제와 관련한 내용에서 소전(少典)에 대한 것과 이름을 현원(軒轅)으로 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黃帝者少典之子 황제라는 자는 소전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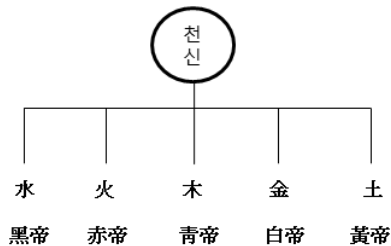
姓公孫名曰軒轅 성은 공손이고 이름을 현원이라 하였다.

사마천은 소전을 사람으로 인식하여 공손황제를 소전이 아들이라 하였다. 또한 『사기 정의』에서는 『제왕세기』를 인용하여 신농의 어머니가 소전비(少典妃)라 하였다. 이 내용대로라면 공손황제와 염제신농은 형제기간이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활동 시기는 500여년의 차이가 난다.

### Ⅲ. 오제본기의 인물 관계 분석과 평가

#### 1. 오제 선정과 활동 중심지의 문제

『사기』『봉선서』에서 오제는 천신(天神)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였다.<sup>17)</sup> 이것은 최고 위치에 천신이 있고 그 아래로 오행 지역의 책임자들 5명이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이며, 이를 조직 관계구조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천신과 오제와의 관계

이때 천신의 칭호는 현대적인 종교적 의미의 대상이 아니라 상고 때에

17) 『사기』『封禪書』 앞의 책, 547쪽.

“天神貴者太一。『索隱』太一佐曰五帝”

뛰어난 공적을 남긴 황제(皇帝)에게 붙여진 절대적인 존칭의 칭호이다. 『사기』 『오제본기 정의』에서는 고대 문헌에서 神을 천신이라 하고 있으며, 神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제왕의 존칭이라고 하였다.<sup>18)</sup> 『설문해자』에서도 神은 천신이라고 하였다.<sup>19)</sup> 神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대상에 대한 존칭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볼 때, <그림 1>에서 나타낸 오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칭호는 오제라는 표현보다는 오덕왕의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전국시대 이후 등장한 오행 상생과 상승에 의한 오제 선정은 원래 天의 오행에 의한 동시대에 다섯 방위에 대한 대표자 5명을 선정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것은 당시에 만들어진 상생과 상승 개념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 확보에 필요한 인물 선정에 적용한 것이다. <표 3>에서 대표적인 문헌인 『좌전』, 『예기』, 『여씨춘추』, 『회남자』에서의 오제는 복희, 신농, 황제, 소호, 전욱이다. 이것은 상생의 순환 구조인 木 - 火 - 土 - 金 - 水의 순서에 의한 선정이다. 또한 『상서』, 『제왕세기』, 『세본(世本)』의 인물 선정에서는 시작을 소호로 하여 金 - 水 - 木 - 火 - 土의 순환으로 이어져 역시 상생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사기』 『오제본기』에서의 오제는 土 지역의 책임자로 칭해졌던 공손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런데 堯 다음의 舜도 土 지역의 책임자인 黃帝로 불린다. 이처럼 土 지역에 대해 두 명의 대표자가 등장하는데 반해, 金 지역의 인물에 대한 선정은 없다. 이로 인해 『오제본기』의 순환이 土 - 水 - 木 - 火 - 土의 구조가 되어 오행 상생이나 상승의 순환과도 맞지 않게 된다. 土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서는 추연의 종시오덕론의 순환인 土 - 木 - 金 - 火 - 水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공손을 근본으로 삼아 단일 계보에 의해 천하가 堯, 舜으로 이어진 것처럼 만들려는 후대의 단순한 역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제본기』에서 선정

18) 『사기』 『오제본기 정의』, 앞의 책, 30쪽.

19) 『설문해자』, 상해고적출판사, 1988, 3쪽.

된 오제의 인물들이 당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보장도 없다.

『오제본기』의 오제 선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선정 인물들의 활동 중심지가 같은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대적인 순서로 공손은 토로 한 중앙 지역, 전욱은 水로 한 북방, 제곡은 木으로 한 동방, 堯는 火로 한 남방, 舜이 토로 한 중앙지역이 된다. 이들 5명의 활동 기간은 길게 잡아도 400여년 정도이다.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인물이 바뀔 때마다 중심지가 순서적으로 土, 水, 木, 火, 土로 변한다는 것은 오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정상적이지 않다. 어느 한 곳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어하였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천하에서 이렇게 빠른 중심지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동방위 木에 있는 최고 중심지에서 오행 지역의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그 오행의 책임자들 중에서 감독할 대표자를 순서에 따라 바꾸면서 역할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마천의 『오제본기』에서 주장하듯이 오제 선정 인물들이 모두 공손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의 사회체제는 부계(父系)보다는 씨족(氏族)인 모계의 성격이 강하여 『오제본기』의 오제가 공손의 계보로 이어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백호통의』에서도 삼황과 오제의 시대에는 자식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0)</sup>

그러므로 오행의 중심지와 관련하여 공자가 말하였듯이 오행의 지역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위치는 동방위의 木이며, 천신이 있는 곳이다. 이 木 지역이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오제의 인물들을 임명하고 총괄 관리하는 중심지인 것이다. 황제 공손을 중심으로 기술한 『오제본기』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20) 『백호통의』卷一: “古之時未有三綱六紀民人但知其母不知其父”

## 2. 오제본기에서 인물 관계의 문제

『오제본기』의 공손의 활동 관련 내용에서 염제와 판천의 교외에서 3전을 한 후에 비로소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고 하였다.<sup>21)</sup> 그러나 염제와 공손은 서로 활동 시대가 다르며, 염제가 공손보다 500 여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 나타난다. 『제왕세기』, 『역사(繹史)』, 『만고역대연기(萬古歷代年紀)』, 『일원기』에서는 염제 신농을 중심으로 하여 8세의 역년에 대한 기록이 있다.<sup>22)</sup> 염제를 1세로 하여 그 뒤를 이었던 7세의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제왕세기』에서는 제승(帝承), 제임(帝臨), 제명(帝明), 제직(帝直), 제래(帝來), 제양(帝衰), 제유(帝楡)의 8세가 있다. 『만고역대연기』에서는 제승, 제임, 제측(帝則), 제백(帝百), 제래, 제양, 제유라 하였다. 『일원기』에서도 제임, 제승, 제명, 제직, 제리(帝釐), 제애(帝哀), 제유의 순서로 이어진다. 『역사』에서는 제승, 제임, 제명, 제직, 제래, 제애, 제유로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문헌에 따라 이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며, 공통적으로 염제를 포함하여 이어한 진수인 수는 8명이다. 또한 이들 8세의 역년은 『제왕세기』, 『일원기』, 『만고역대연기』, 『사기색은』에서는 520년 또는 530년이라 하고 있다.

그런데 사마천은 시대적으로 5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염제를 공손과 동시대의 인물로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기』『오제본기』軒轅... 教熊羆貔貅獬虎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  
三戰然後得其志

현원은 맹수들을 교련하여 이들을 이용하여 염제와 판천의 교외에서 3전을 한

21) “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三戰然後得其志”

22) 황보필, 『제왕세기』, <http://ctext.org/library.pl?if=gb>;尹泓定, 『일원기』,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서해제10』, 평민사, 2008, 5~10쪽; 『繹史』 권4 『염제기』, 문연각 사고전서전자판, 5~8쪽; 『만고역대연기』, 저자와 발행처, 발행연대 미상, 5~8쪽.



〈그림 2〉 염제의 전수관계도

후에 승리하여 그가 승리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마천이 『오제본기』를 저술하면서 참고하였다고 밝힌 『대대례』 『오제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대례』 『오제덕』 軒轅... 教熊羆貔貅獬虎以與赤帝戰於阪泉之野

현원은 맹수들을 교련하여 이들을 이용하여 적제와 환천의 교외에서 싸움을 하였다

『오제본기』에서 현원이 염제와 싸움을 하였다는 부분을 『대대례』에서는 적제와 싸움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마천은 오행의 한 지역인 火의 책임자인 적제를 활동시대가 500여년 차이가 나는 염제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결국 동시대의 火지역의 적제와 土 지역의 황제 현원의 갈등을 염제

와 공손 현원의 싸움으로 잘못 기술하여 역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염제는 火지역의 대표 인물 중의 한 명일 뿐이다. 염제를 적제라 부르는 것은 하지만 적제가 염제라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대국가 형성 시기의 인물인 堯도 적제라 불렀다.

염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少典과 관련한 것이 있다. 『오제본기』에서는 黃帝少典之子라 하여 황제를 소전의 아들로 나타내었다. 당대(唐代)의 장수절(張守節)은 『사기정의』를 저술하면서 『제왕세기』를 인용하여 염제 신농의 어머니를 소전비(少典妃)라 하였다.<sup>23)</sup> 少典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은 『사기』 「진본기(秦本紀)」에서 大業取少典之子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대업(大業)은 요순(堯舜)시대의 사람인 고요(皐陶)이다.<sup>24)</sup> 만약에 少典이 『오제본기』에서처럼 사람이라면 그 수명이 염제에서 고요까지 약 800여년이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이처럼 염제, 공손, 고요의 시대에 나타나는 소전은 인명이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한 별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오제본기』에서 공손을 소전의 아들로 인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제본기』에는 공손과 동시대의 인물이며, 오제와 관련한 문헌에서 공히 등장하는 소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표 3>에서 정리되었듯이 『상서』와 『제왕세기』에서는 소호를 오제로 선정하고 있다. 공안국도 『서경』 서(序)에서 『오제본기』와는 다른 오제의 인물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소호를 포함한 인물들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서방의 鎡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에서도 소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소호는 공손과 동시대의 인물로 오행의 鎡 지역 책임자로 황제와 더불어 백제로 불린 인물이다.

『오제본기』에서는 공손과 소호의 예처럼 동시대에 두 명 이상의 인물의 병립(竝立)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사마천은 공손

23) 『史記』 「오제본기 정의」, 앞의 책, 27쪽.

24) 『史記』 「秦本紀」, 앞의 책, 93쪽.



황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적제를 무너뜨리는 설정을 염제로 바꾸고 백제인 소호의 존재를 무시하고 『오제본기』를 기술하였다. 백제와 적제, 황제를 포함하여 동시대의 오제의 인물들이 세 명이 등장하는 것은 상생과 상극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일계보로 이어왔음을 주장하는 『오제본기』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오제본기』의 오제 선정에 대한 문제를 넘어 증시오덕 등과 같은 상생과 상승으로 역사를 해석하려했던 당시의 접근방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오제는 동시대에 오행의 다섯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기』 『오제본기』의 내용에 나타나는 오제선정의 객관적 타당성 부재와 인물간 관계 설정의 잘못, 인물들의 활동 중심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오제본기』의 오제는 공손을 중심으로 천하가 단일계보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려는 잘못된 시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접근은 인물이 바뀔 때마다 그 활동 중심지도 중앙에서, 북방, 동방, 서방, 중앙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발생한 중심지 이동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수덕, 화덕, 목덕, 토덕, 금덕의 오덕으로 다스려지며 단일 계보로 이어진 세상이라면 정상적이지 않다. 또한 넓은 천하에서 이렇게 빠른 중심지 이동은 불가능하다.

『오제본기』에는 또한 오제의 인물들에 대한 활동 내용의 전개 부분에서 많은 과장과 축소 문제가 있다. 오제로 선정된 위인들의 활동 시기의 중심 지역은 동방위의 木이지만 『오제본기』에서는 토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것은 황제라 불린 공손 현원의 주요 활동지인 土 지역을 강조하여 마치 상고의 역사가 공손 중심으로 이어진 것처럼 기술하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러한 근거로 土 지역의 책임자인 공손의 활동상을 강조하면서 시간적으로

500여년 차이가 나는 염제를 동시대의 갈등 구도의 대상으로 잘못 기술하였다. 이것은 적제를 염제로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또 하나의 인물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동시대의 오제의 한 명인 백제를 배제하고 있다. 『오제본기』의 내용에서는 백제에 대한 기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상생과 상승 관계에 따라 순환한다는 개념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오제인 흑제, 적제, 청제, 백제, 황제의 구성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제본기』의 오제에 대한 내용은 오행 상생과 상승의 기본 개념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역사적 위인으로서의 인정을 위한 객관적 타당성도 부족하다.

이러한 『오제본기』의 문제점은 동아시아 상고와 고대 국가 형성 초기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떨어지게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제본기』의 범위에 속하는 연구의 수행에서 이 문헌이 가지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 자료와 유사한 또는 이를 인용한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쳐 활용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0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12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정하여  
2015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문헌】

### 1. 자료

- 郭沫若, 『中國古代社會研究』,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 95쪽.
- 郭爲, 『음양오행가의 사상』,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211쪽.
- 蒙文通, 『古史甄微』, 成都, 巴蜀書社, 1999, 75쪽.
- 반고, 『백호통의』卷一 「덕론」, 문연각 사고전서전자판.
- 『만고역대연기』 「태고」, 저자와 발행처, 발행연대 미상, 5~8쪽.
- 『사기』, 북경, 예문인서관, 건륭 12년, 26~30쪽, 93쪽, 537~555쪽.
- 소길, 『오행대의』 제 5 「오령(五靈)」, 목판본, 1804, 25~26쪽, 32~37쪽.
- 『실문해자』, 상해고적출판사, 1988, 3쪽.
- 『書經』 「洪範」, 문연각 사고전서전자판.
- 王籊, 『孔子家語』 권6 「五帝」, 발행처와 연도 미상, 75~77쪽.
- 윤홍정, 『일원기』,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서해제10』, 평민사, 2008, 5~10쪽.
- 『釋史』 권4 「염제기」, 문연각 사고전서전자판.
- 이맥, 『태백일사』(한뿌리 발행 환단고기 수록), 2005, 52쪽.
- 황보밀, 『제왕세기』, <http://ctext.org/library.pl?if=gb>.
- 『춘추번로』 「오행지의(五行之義)」, 문연각 사고전서전자판.

### 2. 논저

- 김이식, 「『사기』 속에 나타난 오자서의 인물 형상 연구」, 『동아시아고대학회 57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5, 197~210쪽.
- 박동인, 「추연의 오행상승설과 상생설의 구조와 함의」, 『철학연구』 84권, 2009년, 83~113쪽.
- 박병섭, 「사기 오제본기와 그의 전거 (『대대례기』 「세계성」, 『공자가어』 「오제덕」, 『춘추』, 『국어』, 『상서』) 사이의 비교」, 『선도문화』 11권, 2011, 167~235쪽.
- 안예선, 「『사기』의 춘추(春秋) 시기 서사(敘事) 고찰 — 좌전(左傳)과의 비교를 중

심으로, 『중국학논총』 46권, 고려대학교, 2014년, 239~267쪽.

이인호, 『『사기』의 허구성(虛構性)과 사마천(司馬遷)의 인생관 - 소진(蘇秦), 장의열전(張儀列傳)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28권, 2005, 107~130쪽.

〈Abstract〉

## Issues related to the recording of the figures in the Annals of the Five Emperors (五帝本紀) of Shiji (史記)

Moon, Chi-ung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figures referred to as the Five Emperors are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Five Emperors (五帝本紀) of Shiji (史記). The Five Emperors selected are the Yellow Emperor (黃帝), Zhuanxu (顓頊), Ku (嚳), Yao (堯), and Shun (舜). They reigned during the 500-year period from the age of the Yellow Emperor to the reign of Shun. However, there are some critical historical issues such as the different groupings of the Five Emperors, the incorrectly described activities era of the main figures, and the exaggerated or reduced activity description on the specific figures. In order to clear these problems, we compared its contents with reference materials pertaining to Shiji.

From the comparison analysis, we know that the selection of the Five Emperors was not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mutual generation (相生) sequence or the order of mutual overcoming (相克). The central area for activities during the reign of each emperor, in addition, used to move from place to place. The frequent shift of central area depending on regime changes is not normal. The eastern place Mok (木) was considered the central state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during the era of Five Emperors; the Annals of the Five Emperors mainly pertain to To (土). This was exaggerated by Sima Qian (司馬遷) as the main history of the Yellow Emperor in ancient times. The Red Emperor lived about 500 years ago, and then Yellow Emperor reigned. However, Sima Qian described two people of the

same age making unreasonable achievements for the Yellow Emperor. In addition, he did not include the White Emperor (白帝) as an emperor of western place at that time within the groupings of the Five Emperors.

We can conclude that these results were due to the subjective opinion of Sima Qian, and we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Shiji reference.

Key Words : Annals of the Five Emperors, mutual generation (相生), mutual overcoming (相克), Yellow Emperor (黃帝), eastern place, Mok (木)